

# 관리자급 직장인, 자녀 돌봄 1시간 증가→퇴사 가능성 11% ↑

##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활용 연구 “돌봄 부담 낮추지 않으면 출산을 반등 어려움”

관리자급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퇴사 가능성도 11%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구 내 돌봄·가사 업무 분담과 정책적 부담 완화 조치가 병행돼야 출산이 반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3일 안서연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미취학 아동 가구 직장 관리자의 근속, 이직, 이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돌봄 노동 부담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돌봄·가사와 퇴직 가능성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관

리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배우자가 있는 남녀 관리자 576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가엔 미취학 아동을 둔 남녀 관리자 1703명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평균 연령은 44.35세였으며 85.36%가 여성이었고, 미취학 아동 가구의 남자 관리자 비율은 87.06%로 나타나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

일주일 간 본인의 돌봄 노동 시간은 13.19시간이었고 미취학 아동을 둔 남녀 관리자의 돌봄 노동 시간은 22시간이었다. 배우자의 돌봄 시간은 각각 23.66시간, 25.83시간으로 더 길었다.

안 부연구위원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돌봄 시간과 퇴사 가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취학 아동 가구의 관리자의 경우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할수록 퇴사 가능성이 11% 늘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돌봄 부담은 돌봄 시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돌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비 근속 확률에 비해 퇴사 가능성이 4.83배 높았다.

반면 배우자의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할 경우 퇴사 가능성은 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가사 노동 시간에 1시간을 더 사용할수록 퇴사 가능성이 11% 낮아졌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 만족도를 포함한 사업체 특성은 근속 확률에 비해 이직이나 퇴사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개인의 돌봄 노동 시간과 돌봄 노동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감은 퇴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맞벌이 부부들은 부부 사이의 노동 시간, 돌봄 시간 그리고 가사 노동 시간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 진출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과 가사 등에서 여성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 유배우자 가구 중 46.1%인 584만6000가구에 달하는데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019년 여성 기준 3시간7분으로, 남성 54분보다 2시간13분 더 많았다.

돌봄·가사 노동의 불평등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불러오는데,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이중 42.8%가 육아, 26.3%가 결혼, 22.7%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

이 때문에 남녀간 평균 근속 연수는 8.2년 차이가 나고, 임금 수준도 여성은 남성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안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의 총량과 부담이 가구 내에서 적절하게 분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외부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활용으로 부담 수준이 적절하게 낮춰지지 않는다면, 출산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4일 오후 서울 전경련타워에서 ‘2023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안 부연구위원의 연구를 포함한 6개 연구 자료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이 여성 인력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성평등한 노동 시장 조성과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청년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이 참여하는 자살예방 캠페인, 같이살자 같살 서포터즈 박람회’에서 같살 서포터즈가 자살예방상담전화 홍보하고 있다.

## “학부모가 똥싸대기 때려”... 어린이집 교사 남편 국회청원

### 사건 직후 교사 가족, 해당 학부모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저귀에 쌓인 인분으로 폭행 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병원에 찾아온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에게 기저귀에 쌓여 있는 인분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A씨는 이날 치료를 위해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찾았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건 당시, 교사 A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B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씨 얼굴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교사 A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충격적 모습이 나타난다. 교사 A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 받았으며 학부모 B씨를 상해 혐의로 경

찰에 고소했다.

한편 교사 A씨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사건 발생 과정 등에 해 설명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국민동의청원에는 글을 쓴 A씨 남편은 “똥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적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 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처벌 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 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